

재외 한국문화원 인턴 사업참여 결과보고서

인턴 인적사항	성 명	전우림	e-mail	-
	학교명	한국예술종합학교	학과명	음악과 (가야금 전공)
	학번	2021462006		
파견 문화원	주독일한국문화원		사용 언어	영어, 한국어
파견 기간	2021년 1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주요 활동	주독한국문화원 가야금강좌 교육 및 공연			
취득 비자 종류	워킹홀리데이 비자			
비자 취득 절차 (상세히 기술)	서울에 있는 독일대사관에 예약 후 방문한 뒤 비자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 (필요한 서류(2021년)-초청인 여권 및 거주증, 비자 신청서, 여권 사본)			

위 본인은 2021.01.31 ~ 2021.12.31까지 재외 한국문화원 인턴근무를
마치고 불임과 같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18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귀하

인턴활동 지원동기	전에 주독한국문화원에 파견된 적이 있는 선배를 통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주독 한국문화원에 인턴 파견을 하는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비록 코로나 시국이라 걱정도 되었지만, 학교에 재학 중일 때 얻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기는 아쉬워 지원하게 되었다.
문화원 소개	주독한국문화원은 유럽 내 큰 문화원으로 뽑히고, 2020년 최우수 문화원으로 뽑힌 이력이 있다. 또한 예술 활동이 활발한 도시인 베를린에 위치하고 있어, 음악은 물론 미술, 체육 등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코로나 시국이라 대면 공연이 어려운 만큼 유튜브 주독한국문화원 계정을 이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매주 업로드 하여 독일인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
주요 활동내용 (자세히 작성)	문화원 내에 있는 가야금강좌를 매 주 월요일, 화요일 수업한다. 수업은 초급, 중급, 고급 총 3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학생은 대략 20명이다. 현재, 코로나 시국이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했고, 줌을 이용해 개인 지도(15분)를 하였다. 수업 외에는 도서관 관리 보조를 하였고, 문화원 공연에 가야금 연주가 필요할 때 연주했다.
현지 정보	○ 문화적 특징, 음식, 숙소, 통신, 교통, 유의사항 등 ○ 거주지, 비용, 환율, 생활정보, 참고사이트 등 숙소-베를린 리포트, 페이스북 페이지(독일에서 방구하기, 독일 벼룩시장 등등)로 거주지를 구할 수 있다. 음식-외식물가는 한국보다 조금 비싼 편이고, 마트물가는 매우 저렴하다. 통신-알디톡이 편리하다. 가입 절차와 알디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교통-한달권 구매해서 사용했다. 문화원 측에 요청하면 한달권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1.06.15.-VIELFALT LEBEN KOREA

주요 활동실적

Vielfalt leben – Korea zu Gast am Ostpreußendamm



Bild: BA Steglitz-Zehlendorf

Rot-blau eingefärbt war die Kulisse, als das Kommunikationszentrum am Ostpreußendamm am 15. Juni 2021 zum Auftakt seines Jahresmottos „Vielfalt leben – Korea“ einlud. Die überall aufgehängten Lampions trugen die Farben des „Eum und Yang“-Symbols, das als – rot-blaue – koreanische Variante des „Yin und Yang“ die südkoreanische Staatsflagge ziert.

Die meisten der sieben Freizeitstätten der Generation „55 plus“ im Bezirks Steglitz-Zehlendorf haben bereits ein unverwechselbares Profil. Seit gestern zählt auch das im Ortsteil Lichterfelde liegende Kommunikationszentrum dazu. Beginnend mit Korea, solle künftig jedes Jahr ein anderes Land mit seiner Kultur einer breiteren Öffentlichkeit bekannt gemacht werden, kündigte Cerstin Richter-Kotowski in ihrer Begrüßungsrede an. An vier Terminen wird es bis zum Jahresende um verschiedene Aspekte des fernöstlichen Landes gehen. Im Vordergrund steht der Dreiklang aus Kunst, Kultur und Kulinarik. Schließlich sei Korea ein Land mit reicher, jahrtausendealter Kultur und Geschichte und mehr als das Wirtschaftswunderland der Flachbildschirme und Mikrochips, auf das man es öfters reduziere, führte die Bürgermeisterin weiter aus. Sie erinnerte an die Überwindung der deutschen Teilung vor 30 Jahren. Es sei naheliegend gewesen, als erstes Partnerland eine Nation auszuwählen, die die Erfahrung jahrzehntelanger Trennung teile: „Was untrennbar bleibt, ist die gemeinsame Geschichte, Sprache und Kultur“.

Botschaftsrat Dr. Bongki Lee, der als Leiter des Koreanischen Kulturzentrums die Gesandtschaft der Republik Korea (Südkorea) vertrat, nannte es eine Ehre für sein Land, Partner im Rahmen des Projekts „Vielfalt leben“ zu sein. Der Buddy-Bär, den Cerstin Richter-Kotowski dem koreanischen Ehrengast überreichte, steht für Toleranz, Völkerverständigung und die Überwindung von Mauern und Grenzen.

Einen Vorgeschmack auf die kommenden Veranstaltungen im Rahmen des gemeinsamen Projekts von Kulturzentrum und Kommunikationszentrum lieferte Dr. Uwe Schmelter, als Präsident der Deutsch-Koreanischen Gesellschaft e.V. und ehemaliger Leiter des Goethe-Instituts in Seoul profunder Kenner beider Koreas. In einer „Tour d'Horizon“ gab er einen kurzweiligen Überblick über Geschichte, Kultur und Lebensart der koreanischen Nation, ohne das komplizierte Thema der Teilung auszusparen. Auf beiden Seiten des 38. Breitengrades, der Demarkations- und Waffenstillstandslinie, sei die Sehnsucht nach Einheit groß. „Korea ist meine zweite Heimat“, schloss er sein Referat.

Mit bodenlanger Robe himmelblau gekleidet, sorgte **Woorim Chun** für die musikalische Umrahmung der Auftaktveranstaltung: Ihrem Gayageum, einem auch „Wölbrettzither“ genannten Saiteninstrument, entlockte sie die für westeuropäische Ohren ungewohnten und exotisch wirkenden Klänge und Harmonien der traditionellen koreanischen Musik.

„Es wird Sie nicht wundern, dass meine Koreanisch-Kenntnisse überschaubar sind“, scherzte die Bezirksbürgermeisterin. Um dann den Gästen fast akzentfrei zuzurufen: „Hwanyong hamnida“. Herzlich Willkommen auf Koreanisch.

2021.08.08. 베를린 세계의 정원 아시아 축제



2021.09.16. 2021창작음악페스티벌

FESTIVAL FÜR KOREANISCHE NEUE MUSIK

FESTIVAL FÜR KOREANISCHE NEUE MUSIK

2021 한국창작 음악 페스티벌

KONZERTHAUS BERLIN KLEINER SAAL GENDARMENMARKT 10117 BERLIN

16. SEPTEMBER
21. SEPTEMBER 2021
KARTEN:
KULTURKOREA.ORG | 030 269520

1 DONNERSTAG SEP. 16 20.00 UHR
KONZERT **ENSEMBLE K' ART**

2 DIENSTAG SEP. 21 20.00 UHR
KONZERT **ENSEMBLE NUNC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문화원 K' ARTS

FESTIVAL FÜR KOREANISCHE

한국 현대음악 35인 작곡가,
독일 베를린 음악회 가다

<제1회 한국작곡가협회(KCMA) 국제현대음악 페스티벌>에서 개최

올해는 제1회 한국작곡가협회(KCMA) 국제현대음악 페스티벌이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다. 이번 페스티벌은 한국 현대음악의 국제적 교류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한국 현대음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한국 현대음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베를린에서 개최된다. 이번 페스티벌은 한국 현대음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한국 현대음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베를린에서 개최된다. 이번 페스티벌은 한국 현대음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한국 현대음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베를린에서 개최된다. 이번 페스티벌은 한국 현대음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한국 현대음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Feature

NEUE MUSIK

전통과 오늘의
한국 현대음악
베를린에 울린다

PROGRAM
9.18

1 정승윤 재현기

1970.04.01 ~ 1999.04.01

정승윤 작곡가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활동한 한국 현대음악의 대표 인물이다. 그는 전통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한국 현대음악의 독자적인 양식을 확립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Black back studio

Black back studio, Berlin
Black back studio, Berlin

정승윤 작곡가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활동한 한국 현대음악의 대표 인물이다. 그는 전통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한국 현대음악의 독자적인 양식을 확립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2 홍승기

1970.04.01 ~ 1999.04.01

홍승기 작곡가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활동한 한국 현대음악의 대표 인물이다. 그는 전통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한국 현대음악의 독자적인 양식을 확립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Seoul and safety

Seoul and safety, Berlin
Seoul and safety, Berlin

홍승기 작곡가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활동한 한국 현대음악의 대표 인물이다. 그는 전통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한국 현대음악의 독자적인 양식을 확립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3 양희은-유영하-김민서

1970.04.01 ~ 1999.04.01

양희은, 유영하, 김민서 작곡가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활동한 한국 현대음악의 대표 인물이다. 그들은 전통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한국 현대음악의 독자적인 양식을 확립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Hyun-Sung-Hui

Hyun-Sung-Hui, Berlin
Hyun-Sung-Hui, Berlin

양희은, 유영하, 김민서 작곡가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활동한 한국 현대음악의 대표 인물이다. 그들은 전통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한국 현대음악의 독자적인 양식을 확립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NEUE MUSIK

4 박정호

1970.04.01 ~ 1999.04.01

박정호 작곡가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활동한 한국 현대음악의 대표 인물이다. 그는 전통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한국 현대음악의 독자적인 양식을 확립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Seoul and safety

Seoul and safety, Berlin
Seoul and safety, Berlin

박정호 작곡가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활동한 한국 현대음악의 대표 인물이다. 그는 전통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한국 현대음악의 독자적인 양식을 확립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5 서문진

1970.04.01 ~ 1999.04.01

서문진 작곡가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활동한 한국 현대음악의 대표 인물이다. 그는 전통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한국 현대음악의 독자적인 양식을 확립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Seoul and safety

Seoul and safety, Berlin
Seoul and safety, Berlin

서문진 작곡가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활동한 한국 현대음악의 대표 인물이다. 그는 전통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한국 현대음악의 독자적인 양식을 확립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6 배근, 김민서, 서문진

1970.04.01 ~ 1999.04.01

배근, 김민서, 서문진 작곡가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활동한 한국 현대음악의 대표 인물이다. 그들은 전통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한국 현대음악의 독자적인 양식을 확립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Seoul and safety

Seoul and safety, Berlin
Seoul and safety, Berlin

배근, 김민서, 서문진 작곡가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활동한 한국 현대음악의 대표 인물이다. 그들은 전통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한국 현대음악의 독자적인 양식을 확립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7 김민서, 배근, 서문진

1970.04.01 ~ 1999.04.01

김민서, 배근, 서문진 작곡가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활동한 한국 현대음악의 대표 인물이다. 그들은 전통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한국 현대음악의 독자적인 양식을 확립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Seoul and safety

Seoul and safety, Berlin
Seoul and safety, Berlin

김민서, 배근, 서문진 작곡가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활동한 한국 현대음악의 대표 인물이다. 그들은 전통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한국 현대음악의 독자적인 양식을 확립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2021.09.18. 30YEARS OF KW 축하공연

www.performanceagency.biz www.kw-berlin.de

THE
PERFORMANCE
AGENCY

18-19
Sep.
2021

30
years
of
KW

SATURDAY 18.09

Colin Self: Four Criminal Ballads, 15h and 17h
performed by the Berliner Cappella

Battle-ax: String Concerts I & II, 18h30 and 19h30
with Petra Hermanova, Woo Rim Chun, Kim Bo Sung
and Farhang Moshtagh

Peaches & Clusterfuck, 21h30

Eric D. Clark, 20h and 22h

SUNDAY 19.09 | **ALL WEEKEND**

Chino Amobi, from 16h

Conversation Piece II
dressed by Celeste Burlina

Albrecht Pischel: Commission Roundabout
with Michaela Melián, Olu Oguibe, Cibelle Cavalli Bastos, Kris Lemsalu
Malone, Raed Yassin, Ingo Niermann, Nschotschi Haslin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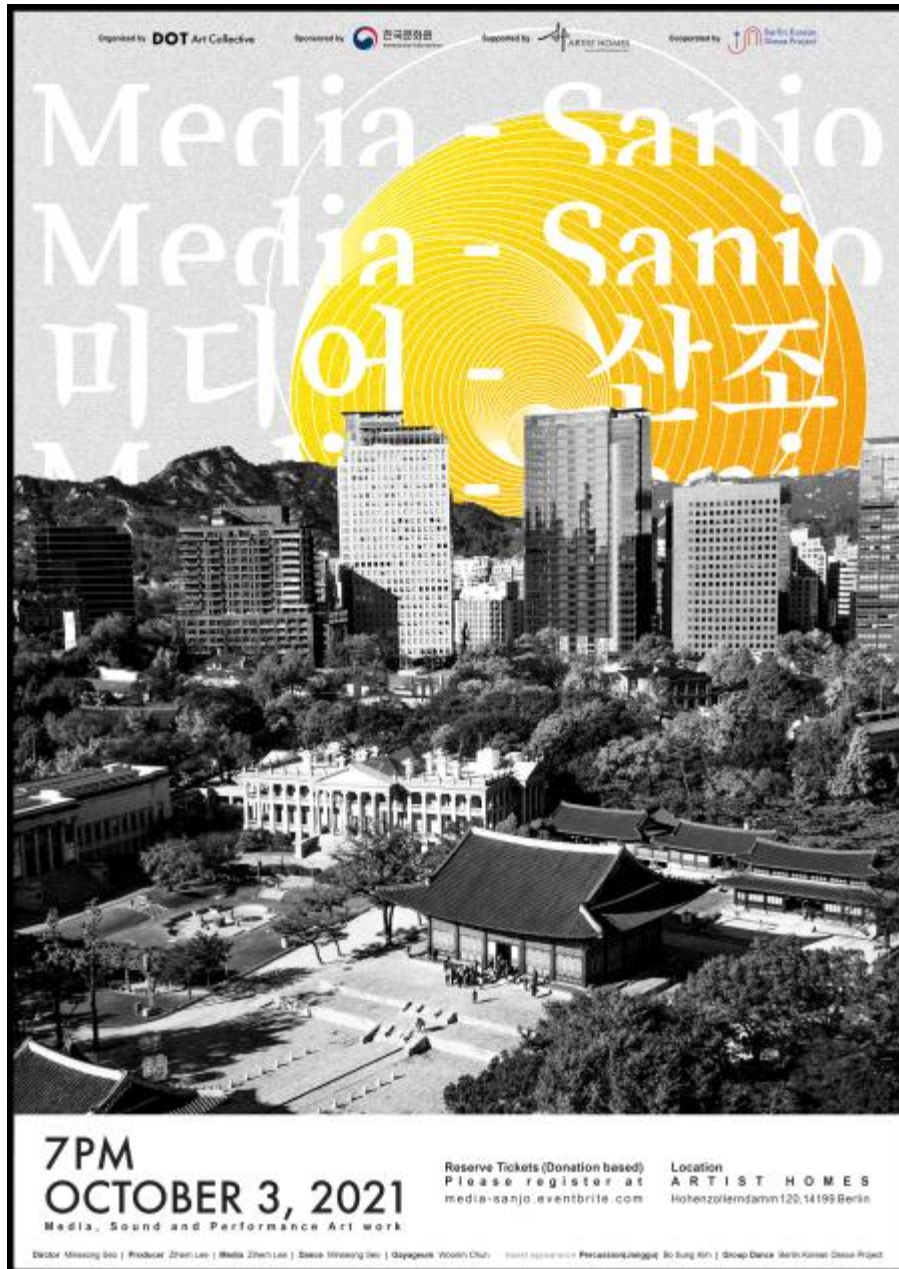
Sat. 13h–18h / Sun. 13h–15h

THE
PERFORMANCE
AGENCY



We are thrilled to curate the music and performance programme for the 30 Years of KW Berlin with a series of dialogues celebrating the conversation's deep and singular transformational potential. Inspired by the institution's history as a venue for production and exchange, we thought the building's iconic courtyard as a space and time for togetherness. All along this weekend, a diversity of voices rise and mingle for a big catch-up. From little confidential backstage to grandiose polyphonic declarations, artists, cultural practitioners and art workers alike – most of whom are linked to the history of KW – indulge in sharing their manifold stories with the broader audience, and collect new ones in return.

2021.10.03. MEDIA SANJO



2021.11.16. 할레(한국예술종합학교와 협업 공연)



	2021.12.10. 전우림 가야금 독주회 
인턴활동 소감 및 제언	학생이 아닌 연주자(사회인)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전공 관련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 단체 활동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제가 즐거워하는 연주 활동을 하면서 예체능 분야 (특히 실기와 전공)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사무직이나, 직장 생활을 해보니 앞으로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 사회인이 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면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활동하려고 합니다.
기타	

※ 위의 형식에 맞춰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

※ 인턴 기간 기념사진(공연사진) 등 추가 자료 제출(별도 제출 가능)